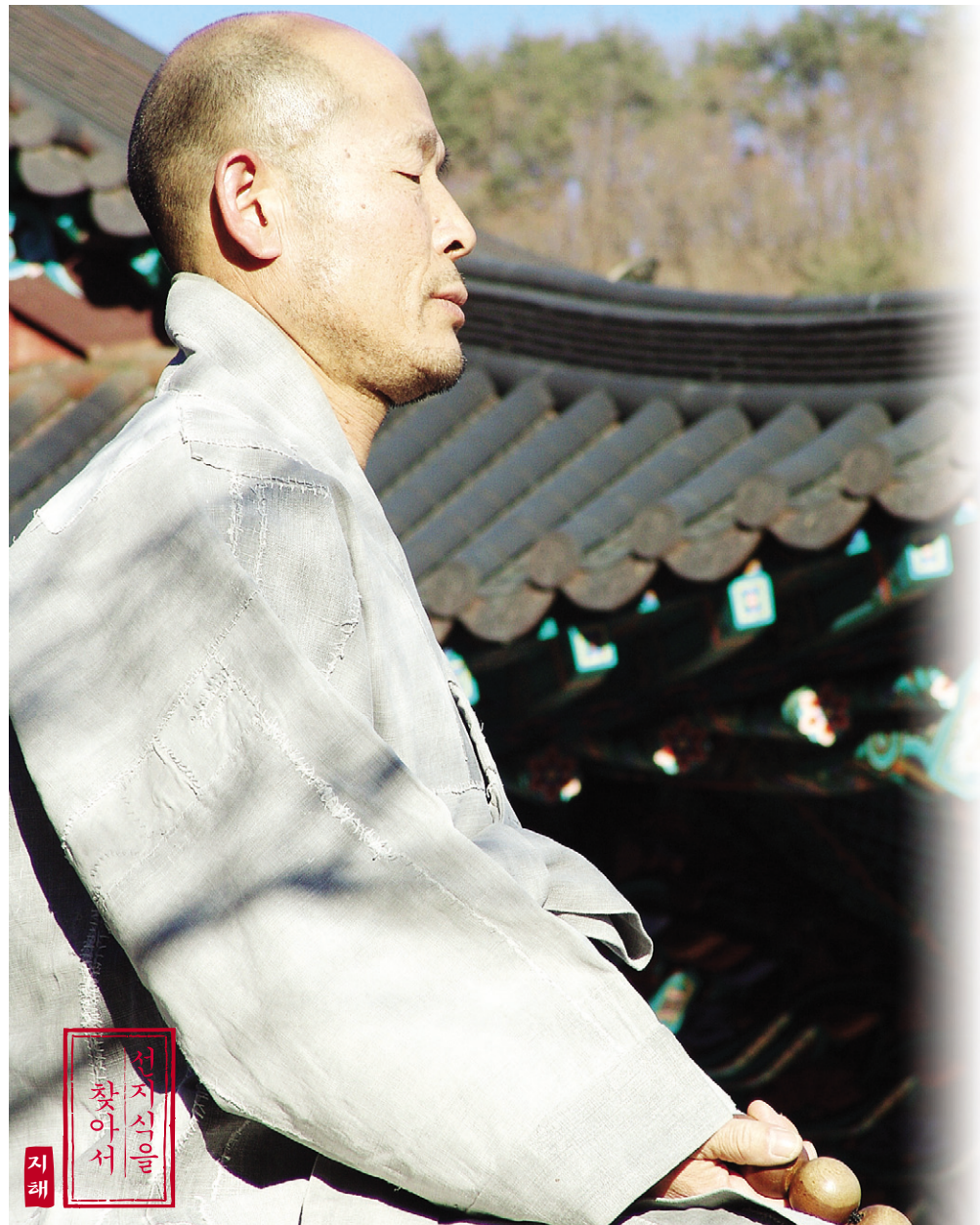


일 속에 보살의 구족한 바라밀이 있으니...



지해 스님을 찾아서

성주 도솔암 주지 지해 스님

도솔암은 신라시대 어느 도승(道僧)이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조용히 나무 하고 농사 지으며 즐기면서 지은 고반정사(考槃精舍) 터에 자리를 잡았다. '고반(考槃)'의 뜻은 '열반·적멸의 세계를 살핀다, 즐긴다'는 뜻이다. 모든 번뇌가 다한 적멸의 세계를 일상생활 중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천상곡의 낮은 고요하여 적멸하기 그지 없고, 밤하늘은 달과 별들을 소반(小盤)에 가득 담아놓은 듯하다 하니, 절터의 유래가 의미심장하다. 예전에 있던 고반사 건물은 불에 타 없어지고 불상은 다른 절로 모셔졌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절터 밑 산꼭짜기에 마을이 들어섰는데, 절 이름을 따서 고반동이라 했으며 동네 입구 산자락 암벽에 '고반동문(考槃洞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동네에 우연히 한 수좌스님이 찾아오니 주민이 무척 반겨서 하룻밤 묵게 됐다. 주민의 안내로 상곡(上谷)을 구경하다가 옛 성인의 숨결을 느껴 곧바로 곁마을 풀고 흙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정진하게 된 스님이 바로 도솔암 주지 지해(智海) 스님이다. 스님은 주민의 간절한 바람과 스님의 구법(求法)일념과 중생을 다생(多生)의 부모로 살피는 원력으로 길상도량을 열게 된 것이다.

행자의 안내로 지해 스님을 뵈고 삼배를 올리니, 스님은 엄숙히 합장한 채 '나무 불'하고 축원을 하신다. 스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나무 불'이라고 인사하기 때문에 '나무불 스님'이란 별명을 얻었다. 스님은 '나무 불'에 모든 악을 끊고 온갖 장애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으로 해탈하려는 의미를 담아 만나는 사람들을 축원한다.

"절터가 범상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도량을 새로 일군 인연이 공금합니다."

"불기 2534(1990)년 봄, 제방 선원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천상곡에 인연이 닿아 집 한 채를 얻고 밭떼기를 구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흙벽돌 2000장을 리어카로 네 달 동안 혼자 실어나르면서 흙집을 짓는데, 동네에서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도와줘서 토굴을 잘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동네 반장님 사랑채에서 주민에게 원호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비롯한 불경을 서당식으로 가르쳤더니, 주민이 절 일을 집안일처럼 돕게 되었습니다."

지해 스님은 3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니 농사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됐고, 낮에는 밭갈고 밤에 참선 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수행을 이어갔다. 낮에는 생명을 가꾸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좌선으로 피로를 풀어가며 조사선의 전통인 '노동선'을 체험한 것이다.

"일을 하면서 비로소 아! 선(禪)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마음이 개방되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수계 받는 심정으로 허공처럼 크게, 대해처럼 넓게, 태산처럼 굳게, 태양처럼 밝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대하(大河)처럼 꾸준하게 흘러가듯 나아가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연과 대화하며 도량을 가꾸는 수행으로 한가하게 살다보니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군요."

지해 스님은 20여 년 가까이 주경야선의 치열한 토굴수행을 하며 재가자를 위한 주말 참선정진과 산사체험법회 등을 이끌어왔지만, 수좌로서의 길에 들어선 지는 무려 40여 년에 달한다.

20세에 동화사에서 하루 2시간씩 자며 정진하던 행자시절에 진제 스님(동화사·해운정사 조실)을 은사로 모시게 된 지해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인 진제 스님의 만상좌로서 묵묵히 수좌의 길을 걸어왔다.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지도, 법거랑 등에 대해 질문하자, 지해 스님은 행어나 은사스님에게 누가

우연히 찾아든 천상곡에 걸망 풀고 흙집 지어 정진

모든 이에 '나무불' 청정해탈하라는 발원 담아 불러

필가 말을 아끼며, 한 마디만 하신다.

행자 시절, 동화사 말사인 은좌사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선문답이다.

일행 중의 한 수좌가 "어떤 것이 본래인(本來人, 불성)입니까?" 하고 묻자, 진제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부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법거랑을 보고 지해 스님은 스승을 더 깊이 믿고 평생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20여년간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모든 인연을 끊고 토굴수행에 몰입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젊은 시절, 선방에 입방하면 도량문을 나서지 않고 등산도 하지 않은 채 좌복 위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죽비소리와 공양 목탁소리, 종성소리, 법문시간에 쫓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를 잊고 밖으로 쫓겨다니는 셈이지요."

깨달음에 대한 추구 역시 자칫하면 욕심과 조급함이 앞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험퍽이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한 스님은 보다 철저한 수행을 위해 모든 반연을 끊고 토굴수행을하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천상산에 인연처를 발견한 스님은 자연을 스승, 도반, 도량으로 삼아 정진하면서 비로소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 놓게 되었다.

"창문을 열면 하늘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늘 보고 나 한번 보고, 일하다가도 나를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알 수 없던 마음자리를 신선하

게 쳐다보게 되고 무수한 과거생 동안 지은 허물의 뿌리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석 예불 때 10악참회를 하면서 더욱 옹골게 본래의 나를 살피며 밝고 조용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참회하여 고쳐가면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는 일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지해 스님의 수행이력은 40여 년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참 전이다. 출가전에 이미 심출가(心出家)를 했기 때문이다.

성주 용암초등학교 5학년 때, 지해 스님은 <도덕> 책에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읽고 '묵소 보다 더 소중한 진리란 게 있구나. 나와 남이 없는 세상, 나 집 내 집이 없는 보도 들도 못한 세상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어린아이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일체 하지 않은 채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보거나 책을 즐겨 읽게 됐다고 한다.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의 막연한 동경심은 성주농고(현 성주고) 2학년 때 비로소 짙어 붙는다. '일체중생이 부처로구나' 하는 건방진(?)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소년은 일부러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발원을 했다고 한다. '내가 참선을 해서 깨달아 회상을 열었을 때, 이 인연으로 저 아이들도 함께 공부해

피안에 이르게 하여지다.'

너무나 조속했던 이 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성주 선석사로 불교공부를 하게 된다. 당시 절에는 노스님이 여러분 계셨는데, 한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론>을, 또 한 분으로부터는 선(禪) 법문을, 또 한 분으로부터는 기도수행담과 포교에 대해 배우게 됐다. 이 때 불교의 기초를 다진 소년은 '일체중생이 부처 아닌 자 없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됐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구도심에 불타 한시바삐 출가하리라 결심을 하게 된다. 결국 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석사 주지스님의 소개로 당시에 '젊은 도인'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진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별써 출가한지 40년이 흘렀어요. 행자 때 공복을 펴서 만든 가사의 본래 천이 조금밖에 남지 않고 새로 기운 천 조각이 대부분이 되었어요. 이처럼 무상한 것이 인생이요, 천 조각처럼 떨어져 나간 것이 자존심(我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생을 헛 살았으니, 내생에는 한 조각 마음광명으로 먼지 없는 구도의 길을 걸으리라 재발심을 하게 됩니다."

구랍 19일, 도량을 일군지 19년만에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 도솔암이 새로 지은 절임에도 수 천년 지난 도량처럼 무게감을 갖는 것은 신도와 주민이 하나 되어 무량한 공덕의 탑을 쌓기 때문이리라. 도대체 주경야선, 노동선은 어떤 것이길래 야박하기로 소문난 사하촌 주민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

지해 스님은 ...

1950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20세에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에서 율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동화사, 봉암사, 통도사, 수도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스님은 은사스님 뜻에 따라 잠시 선학원 중앙선원장과 부산 해운정사 주지를 역임하기도 했다. 1990년부터 도솔암을 복원한 스님은 현재 산사체험법회와 주말철야정진 등을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행자를 지도하고 있다. 저서에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도솔암 이야기> 등이 있다.

2009년의 한 해가 기우는 구랍 26일, 도솔암 가는 길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여정이 될 듯 싶었다. 처음 마주하는 길은 길 위에서 태어나 길에서 법을 전하다 길 위에서 열반하신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구도(求道)의 상징 그 자체다.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구도자에게 길은 삶 자체이자 깨달음의 종착점을 간직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마침내, 네비게이션이 안내한 도착지점인 금수면 영천리에서 천상산(天上山) 천상곡(天上谷) 골짜기로 들어가니 신천지가 펼쳐진다. 천상산은 마치 저 하늘세계에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 북방 비사문천이 도솔천을 받들어 옹호하듯이 동 금오, 남 가야, 서 불명, 북 황악산으로 에워싸여져 있었다. 천상곡 위쪽에 자리잡은 도솔암은 좌청룡 우백호가 옹호한듯한 산세가 범상치 않은 도량임이 저절로 느껴진다.